경희대논술

사회계

목차

2026학년도 사회계열 3
사회계열 · 문제 Ⅰ 3
사회계열 · 문제 Ⅱ 6
사회계열 · 문제 Ⅲ 10

2025학년도 사회계열 13
사회계열 · 문제 Ⅰ 13
사회계열 · 문제 Ⅱ 17
사회계열 · 문제 Ⅲ 20

2024학년도 사회계열 23
사회계열 · 문제 Ⅰ 23
사회계열 · 문제 Ⅱ 27
사회계열 · 문제 Ⅲ 31

2026학년도 사회계열

사회계열 · 문제 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주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의료보장 역시 기본권이라는 근대적 신념과도 이어진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동시에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함께 선언한다. 이는 기본권에 근거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이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권리를 얻는 기회의 불균등함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혜택은 가급적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두 선언 모두 사회적 권리의 평등한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무시한다 해도,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기보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양한 좋은 결과를 약속하며 국가 역할을 넓히려 한 시도는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 나라의 역사만 봐도, 공정성을 지키는 법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입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실용적인 정치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이상주의자다. 그는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자연의 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
국가가 개입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들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에서 질서를 잡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힘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마력이나 신을 연상했던 것이다. 자생적 질서는 조직질서처럼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할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위한 질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구성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인위적 질서로서 조직질서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주의 경제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고, 그것은 지배-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하여 존재하며,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고귀한 행동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평등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도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즉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의 단순한 분배를 넘어 사회적 연대성의 재건도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이며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칸트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나 사기가 아닌 이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세금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며 인간을 누군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가령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는 권장할 만하며 이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600자 이하: 배점 25점]

■ 예시 답안

[가]~[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글이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나], [다], [라], [바]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하고 후자는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가]는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을 부여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회적 권리를 위협하는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다. [마]는 국가는 공공재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평등을 구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는 사회는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국가나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다. [다]는 '애국가' 앞에서 위축된 개인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개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 자생적 질서를 통해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바]는 개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세금이나 정책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힌다. [586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Ⅰ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Ⅰ>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Ⅰ>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가]~[바]는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 관점과 소극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나], [다], [라], [바]는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다], [라],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100

사회계열 · 문제 II

※ 제시문 [가]~[바]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을 참고하시오.

[사]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중단과 상실을 대비하는 국가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모든 주요 원인은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의 적용 대상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환자, 노인 등 수많은 사람이 사회조사의 기준에 따른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급여의 총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충적 보험이 양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이전에 제공되었던 보험급여 가운데 어떤 것도 사실 사회조사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실업급여가 사회조사의 기준에 완전히 못 미치는 것은 아니었던 반면, 상병 및 장애급여와 노령연금은 그 기준을 한참 밑돌았다.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 궁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제외된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급여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아]

한 생원네는 한 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으로 장만한 열서 마지기와 일곱 마지기의 두 자리 논이 있었다. 선대의 유업도 아니요, 공문서(空文書: 무등기) 땅을 거저 주은 것도 아니요, 뼈젓이 값을 내고 산 것이었다. 하되 그 돈은 체계나 돈놀이(고리대금업)로 모은 돈이 아니요, 품삯 받아 푼푼이 모으고 악의악식*하면서 모은 돈이었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었다.

그 피땀 어린 논 두 자리에서 열서 마지기를 한 생원네는 산 지 겨우 오 년 만에 고을 원(군수)에게 빼앗겨 버렸다.

(중략)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히 여길 때, 한 생원은,

“그깐 놈의 나라, 시언히 잘 망했지.”

하였다. 한 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섬뻑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논 스무 마지기에서 열서 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일곱 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하릴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악의악식: 너절한 옷과 맛없는 음식 *세토: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부치는 논밭
*도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

[자]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를란데르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그는 23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그사이 파업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과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 수당, 전 국민 무상 의료 보험,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무상 교육, 주택 수당법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으며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스웨덴은 국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

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동자 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에를란데르 총리는 주장했다.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700자 이하: 배점 40점]

■ 예시 답안

(1)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617자]

(2)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658자]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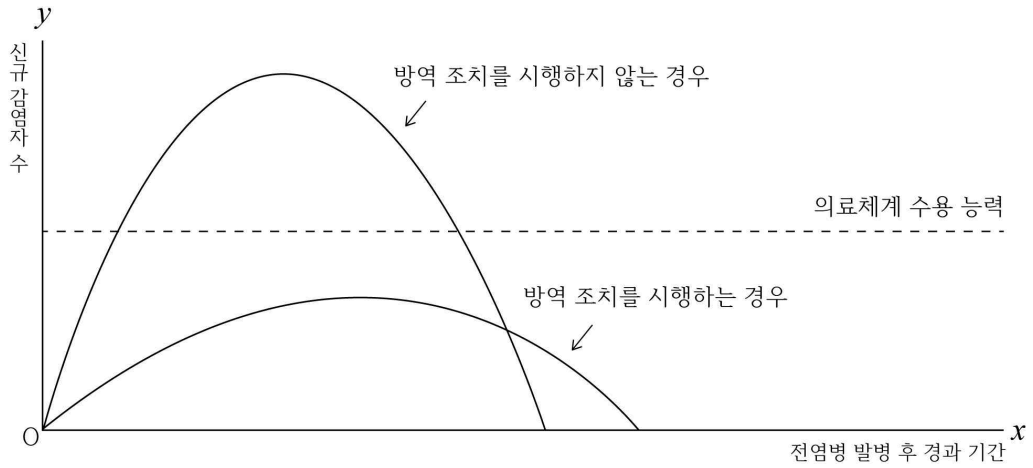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I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 (601~700자)**	100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Ⅱ>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나], [다], [라],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 —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사회계열 · 문제 III

※ 제시문 [가]~[바]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을 참고하시오.

[논제 III]



(1) 위에 제시된 그림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이 처음 발병($x=0$)한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신규 감염자 수를 보여준다. 방역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 및 통제 활동으로,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등에 제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 점선은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으로,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신규 감염자 수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신규 감염자 수가 이 수용 능력을 넘어서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이 소진되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위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전염병 최초 발병 이후 경과 기간($x \geq 0$)과 신규 감염자 수($y \geq 0$)의 관계는 다음의 함수에 의해 표현된다.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begin{cases} 0 \leq x \leq 6 \text{ 이면}, \ \ y = -3x(x-6) \\ x > 6 \text{ 이면}, \ \ y = 0 \end{cases}$

②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begin{cases} 0 \leq x \leq 7 \text{ 이면}, \ \ y = -x(x-7) \\ x > 7 \text{ 이면}, \ \ y = 0 \end{cases}$

국가의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15라고 하자.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방역 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 기간의 두 배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방역 조치는 전염병 최초 발병 직후 시작되어 신규 감염자가 없어지면 중단된다.

(a)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와 그러한 감염자가 발생한 기간을 구하시오.

(b) 정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하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 예시 답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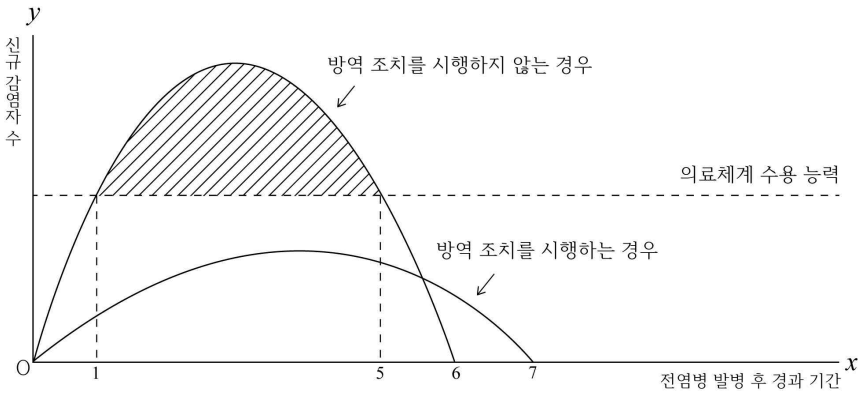
그림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수평선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x(x-6)=15$$
$$-3(x^2-6x+5)=0$$
$$-3(x-1)(x-5)=0$$

방정식의 교점은 1과 5이고 따라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이다.



의료체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한 총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int_1^5(-3x^2+18x-15)dx$$
$$=\left[-x^3+9x^2-15x\right]_1^5$$
$$=-125+225-75-(-1+9-15)$$
$$=32$$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0에서 7까지이고,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4(=7×2)이다.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 32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제시문 [라]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계산 결과는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II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100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I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1)** 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감염자 수가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게 하여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림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가점 5점. ② 그림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국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제시문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면 가점 10점. **(2)** ① 감염자 수 곡선과 의료체계 수용 능력 수평선의 교점이 1과 5임을 풀고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1에서 5까지임을 밝히면 가점 5점. ② 정적분을 통해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총 감염자 수 32를 구하면 가점 10점. ③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0에서 7까지이며,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4임을 옳게 구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설명하면 가점 5점. ④ 제시문 [라]는 국가 개입 없이도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어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주장. 그러나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전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질서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임으로써 제시문 [라]의 주장을 비판하면 가점 5점.	

2025학년도 사회계열

사회계열 · 문제 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여기서 기술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물음은 하나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문장이나 명칭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보다 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길은 사유의 길이다. 모든 사유의 길은 사람에 따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차이가 있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언어에 의해 인도된다. 우리는 기술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 기술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자 한다. 기술은 그 기술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무의 본질을 찾아 나설 때, 나무의 본질은 흔히 보는 개개의 나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기술의 본질도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나]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사용 방법에 달려 있지만, 능력 자체는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과학 기술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어떤 문이 지옥으로 통하는지, 혹은 천국으로 통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열쇠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씨름해야 할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개인의 소신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과학 기술의 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학자들은 아이디어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했는지, 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디어의 실질적인 근원은 '미지의 세계'이며, 우리는 그걸 인간 두뇌의 상상력 혹은 창조적 상상력이라 부르지만, 그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

현재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은 벤담이 고안한 모든 죄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감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 사회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감시 사회의 권력은 감시하기 좋은 단일 장소에서 행사되기보다 이동하면서 여러 장소에 퍼져 있는 일상생활의 내부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은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여 이러한 영향을 더욱 강화한다. 인공지능은 드론과 질병 분류체계에도 활용되어,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감시는 공식적인 정치제도를 벗어나 과학 기술을 통해 사회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른바 '후각 감시'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낌새를 '감지'한다. 과학 기술이 통제와 감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개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라]

TV를 켰습니다 저울에 올려진 고기가 클로즈업되자마자
인접성의 코드 체계가 즉시 작동됩니다.
안심/ 도마/ 식칼/ 프라이팬/ 올리브유/ 적포도주/ 간장/ 육수/

다진양파/ 다진토마토/ 다진마늘/ 청주/ 버터/ 녹말물/ 설탕/ 다진파/ 참기름/ 통깨/ 소금/ 후춧가루/ 피클/ 접시/ 포크/ 나이프/ 냅킨/ 파슬리/ 파프리카/ 안초비……
채널을 바꿉니다. TV 속은 온통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열려 있던 인접성의 코드 체계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모래/ 바람/ 바람무늬/ 뼈/ 해골/ 물/ 2%/ 타클라마칸/ 돈황/ 막고굴/ 103굴/ 코끼리캐러밴/ 옥문관/ 양관/ 누란/ 미라/ 나미브/ 사하라/ 낙타/ 발자국/ 바그다드카페/ 선인장/ 비단길/ 천산남로/ 천산북로/ 천불동/ 트루판/ 백야……
다시 채널을 바꾸고 코드 체계도 재빨리 유사성의 코드 체계로 바꿉니다. 갑자기 기억장치가 유사성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아,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해요. 끊임없이 움직이지요…… 지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즉각적이지요…… 나는 분명 그것을 알아요. 전문적인 용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은 회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달의 표면이나 깊은 바닷속도 갈 수 있어요. 또…… 그것은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해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의…… 일부예요. 우리는 그것과 결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것은 날마다 빠른 속도로 생겨나요. 우리는…… 그것에 갇혀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에……우리는 잘 길들여져 있어요.

[마]
근대 과학 기술 시대가 시작되면서 목적론은 추방되고 말았다. 즉 지나간 어떤 것도 뒤에 생겨난 것을 위해 있지 않으며,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뒤에 오는 것은 가치와 무관한 필연성에 의해 동일한 성격을 가진 앞선 조건들을 뒤따를 뿐이다. ‘어디에서’로 표현되는 배후의 힘은 결정되어 있지만, ‘어디로’는 그렇지 않다. 흐름을 결정짓는 형식적인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들은 자기의 지배하에서 산출되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목적을 가지지 않는 자연법칙의 지배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미래의 끌어당김이 있을 뿐이며, 자연에는 오직 과거의 밀쳐냄이 있을 뿐이다. 자연이 아무런 목적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결여할 수도 없다. 자연에는 가치의 충만과 공허, 가치의 선과 악 혹은 높음과 낮음 등의 구분이 없다. 그렇다면 대상이 가진 존엄성에 대한 구분 역시 있을 수 없다.

[바]
기술은 노동으로 인간의 육체적 생존을 유지케 함으로써 빈곤을 면하게 해 준다. 또한 기술은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환경 세계를 확대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기술의 발명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고 결국 그 유용성에 의해 평가가 된다. 발명에는 유용성 이외에 다른 동기도 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없던 생산물의 창조에 대한 희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발명가는 모든 유용성을 무시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발명의 선택과 그러한 발명의 결정적인 수행은 유용성에 따르기 마련이다. 만일 발명가가 자신의 욕망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만 한다면 결코 새로운 욕구를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기술의 목표는 자명하게 주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경감, 유용한 상품의 생산, 대량생산이 그 목표인 것이다. 기술의 존재 이유는 그러한 유용성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단으로 남게 된다. 기술 자체

는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넘어 서 있다. 기술은 행복과 불행, 이 양자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논제 Ⅰ]
제시문 [가] ~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25점]

■ 예시 답안

제시문 [가]~[바]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글이다. [가], [다], [라]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관점이고 [나], [마], [바]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가]는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의 중립성을 옹호하면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종속됨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데이터 기반 기술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개입과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인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속성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누리고 있는 편리한 삶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과학 기술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으로 파악해야 하며 과학자에게는 과학 그 자체가 중요하지 과학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마]는 근대 과학 기술은 자연에 인간의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는 과학 기술의 특징은 유용성에 있으며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와 선악과 관계 없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60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논제 Ⅰ **배점: 100**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Ⅰ>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Ⅰ>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가]~[바]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다루고 있다. [가], [다], [라]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관점이고 [나], [마], [바]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다], [라]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사회계열 · 문제 II

※ 제시문 [가]~[바]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을 참고하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사]

나는 거의 2년 동안, 생명이 없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것을 위해 나는 휴식과 건강마저 잃고 말았다. 나는 절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간절히 그것을 갈망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끝내자,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역겨움이 엄습했다. 내가 창조해 낸 존재를 더는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러곤 오랫동안 침실을 서성거렸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피로가 몰려들면서 격한 마음이 겨우 누그러졌다. 나는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싶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실 잠이 들긴 했지만 아주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중략)

"명심하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는 당신보다 키가 크고, 관절이 훨씬 더 유연하오. 하지만 당신과 대적할 마음은 없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당신이 내게 빚진 책임만 다해준다면, 나의 본래 주인이자 왕인 당신 앞에선 부드럽고 온순해지겠소. 아아,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에겐 공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찌 나만을 짓밟으려 하는 거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내게 당신의 정의와 자비와 애정을 쏟아야 할 텐데 말이오. 명심하시오. 난 당신의 피조물이란 걸. 나는 당신의 아담이건만 아무런 죄도 없이 당신에 의해 기쁨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되었소."

[아]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이 낳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윤리 문제에 개입하면, 오히려 "과학 기술 연구는 결국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주장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한 과학자가 현 단계에서 분명하지도 않은 미래의 윤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현재 연구가 낳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의 특징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은 예측하기 무척 힘들다는 것이지요. 1940~50년대에 생물학자들이 DNA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그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밝혀냈을 때 지금과 같은 바이오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십시오. 만약 당시 인간 유전자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문제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연구를 중단하도록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자]

거대과학(big science)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대의 과학 기술은 연구와 개발에 많은 인원과 비싼 설비를 요구한다. 이것은 이제 연구의 방향과 자금에 대해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 규모가 커져 기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는 보통의 개인 과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염려되는 것은 과학 연구와 응용을 조정하는 기관, 즉 연구 심의회, 상업 회사, 부유한 시설 재단, 군 그리고 정보 부서 등의 권력이다. 그들이야말로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프랑켄슈타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더 심오한 과학 지식이 이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지식을 남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두려운 일이다.

[논제 II]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 예시 답안

(1) [나], [마], [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과학 기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 중 나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은 가치의 문제와 무관한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므로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윤리적 평가와 비판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과학 기술로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대비된다.

[아]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평가와 비판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규제함에 따라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현대의 과학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의 방향이 권력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대비된다.[662자]

(2) [가], [다], [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과학 기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 중 나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 연구의 선택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개발된 과학 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적인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과학 기술로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아]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평가와 비판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규제함에 따라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대비된다.

[자]는 현대의 과학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의 방향이 권력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672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논제 II **배점: 100**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Ⅱ>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다], [라]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과학 기술 연구의 선택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개발된 과학 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적인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나], [마],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과학 기술은 가치의 문제와 무관한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므로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윤리적 평가와 비판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인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과학 기술로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 [사]는 인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과학 기술로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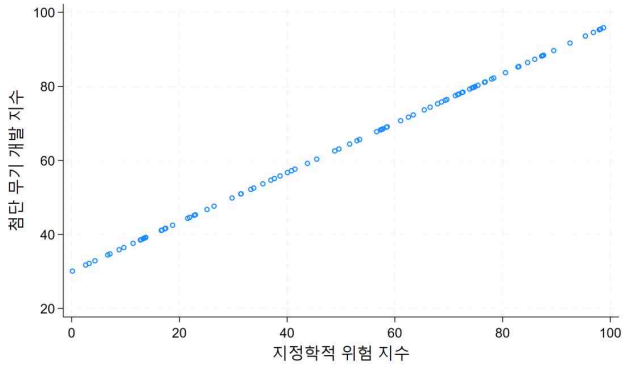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평가와 비판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규제함에 따라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대비된다.
— [아]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평가와 비판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규제함에 따라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현대의 과학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의 방향이 권력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 [자]는 현대의 과학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의 방향이 권력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나], [마], [바]의 입장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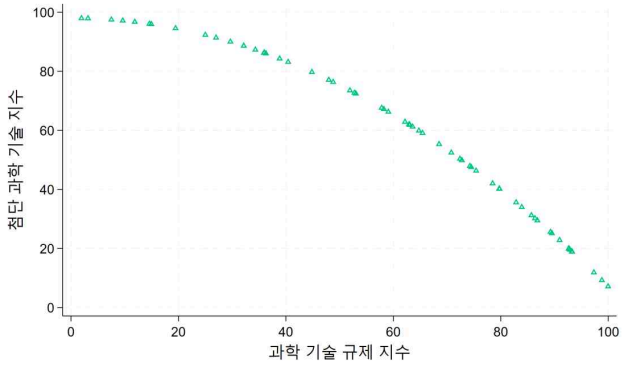
사회계열 · 문제 III

※ 제시문 [가]~[바]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을, 제시문 [아]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Ⅱ)을 참고하시오.

[논제 III]



<자료 1>



<자료 2>

(1) <자료 1>은 국가별 지정학적 위험 지수와 첨단 무기 개발 지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지정학적 위험 지수는 한 국가가 전쟁, 테러, 군사적 갈등 등 부정적인 지정학적 사건에 노출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지정학적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첨단 무기 개발 지수는 첨단 무기 개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기능의 첨단 무기들이 더 많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이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자료 2>는 국가별 과학 기술 규제 지수와 첨단 과학 기술 지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규제 지수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첨단 과학 기술 지수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첨단 과학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2>에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3)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반면, 과학 기술 개발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인다. 국가 A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 수준을 x라고 하면, 과학 기술 개발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국가 A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한 사회적 이득은 $120 - 8x^2$이다.

② 국가 A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 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117 - 12x + x^2 - 2x^3$이다.

③ 규제 수준 x는 0 이상 3 이하의 값을 가지며 $(0 \le x \le 3)$, x가 클수록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에서 오는 사회적 이득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차감한 것을 사회의 순편익이라 할 때, 사회의 순편익을 최대로 하는 규제 수준 x의 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 예시 답안

(1)

<자료 1>은 지정학적 위험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첨단 무기를 더 많이 개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 개발이 정치적 혹은 국가 안보 상황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제시문 [가], [다], [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자료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학 기술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시문 [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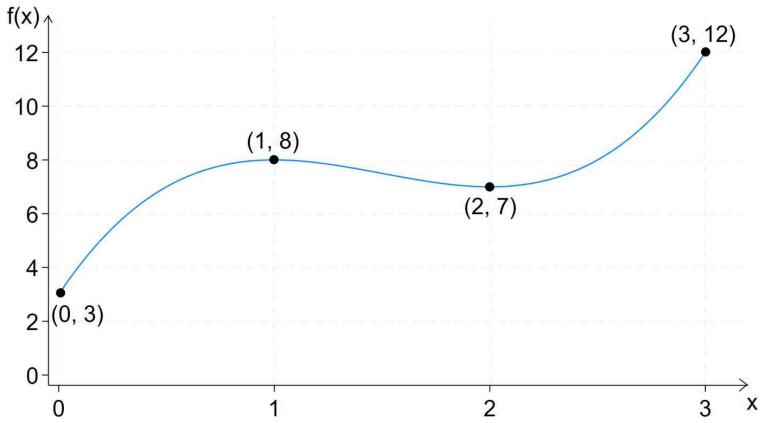
(3)

과학 기술 개발의 순편익을 $f(x)$라고 하면,

$$f(x) = 120 - 8x^2 - (117 - 12x + x^2 - 2x^3) = 2x^3 - 9x^2 + 12x + 3.$$

$$f'(x) = 6x^2 - 18x + 12 = 6(x-1)(x-2).$$

$f'(x) = 0$에서 $x = 1$ 또는 $x = 2$.
닫힌구간 [0, 3]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함수 $f(x)$는 $x = 3$일 때 최댓값 12를 갖는다. 이는 과학 기술 개발의 이득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하면 과학 기술 개발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 [아]가 과학 기술 개발의 종합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득만을 고려하여 규제의 단점만 부각한 점을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논제 III **배점: 100**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I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1)

① <자료 1>은 과학 기술 개발이 국가의 정치적 혹은 국가 안보적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가], [다], [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면 가점 10점.

(2)

① <자료 2>는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학 기술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시문 [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면 가점 10점.

(3)

①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 수준 x의 함수인 순편익 $f(x)$와 그것의 도함수 $f'(x)$를 정확하게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들을 정확하게 구하면 가점 5점.

② 닫힌구간 [0, 3]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구한 다음, 양 끝점 0과 3에서의 함수값과 극값을 구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찾고, 순편익 $f(x)$를 최대로 하는 규제 수준 x를 구하면 가점 5점.

③ 순편익을 최대로 하는 규제 수준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의 최대인 높은 규제 수준임. 이 결과는 과학 기술 개발로 인한 이득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높은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을 들어, 과학 기술 개발의 이점만을 고려하여 규제의 단점을 부각한 제시문 [아]를 비판하면 가점 10점.

2024학년도 사회계열

사회계열 · 문제 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자연은 물체로 채워지고, 그 변화는 운동에 의해 설명되며, 운동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물체는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모든 물질적 존재는 동일한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이며, 인간 역시 동식물이나 무기물과 차이가 없다. 살아 있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시계와 같다. 즉, 자연도 기계이고 인간도 기계이다. 그것은 시계와 같이 감겨진 태엽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태엽과 운동이 인과 연쇄로 결부되어 있다.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물체의 힘과 작용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어떤 용도에든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연 지배라 할 때, '지배'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자연 체계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자연의 각종 힘이나 소재를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응용하는 것이다. 물질적 존재, 즉 모든 자연을 동일한 역학 법칙에 의해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자연의 내적 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나]

대지에 대해 인간이 맺는 윤리적 관계는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즉, 철학적 의미의 가치이다.

대지 윤리의 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는 우리의 교육 및 경제 체제가 대지에 대한 의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현대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질적 도구들로 인해 대지에서 격리되어 있다. 현대인은 대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대지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작물이 자라는 공간일 뿐이다. 그들을 하루 동안 대지 위에 풀어놓아 보라. 그 땅에 골프장도 절경도 없다면 그들은 아주 따분해 한다.

적절한 대지의 사용이 오직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멈춰라.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대지 윤리에 대한 인식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다]

오늘 아침에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서둘러 샴푸로 머리를 감고 교복을 급히 챙겨 입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출근하면서 차로 등교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야호! 차로 학교 앞까지 편하게 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학교 곳곳에 벚꽃이 피어서 한창 예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아껴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이왕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게 멋질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툭툭 치니 꽤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아침밥을 못 먹고 왔더니 점심시간 즈음에는 정말 배가 고팠다. 우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나왔다!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배가 불렀다. 욕심을 내어 가져온 밥과 반찬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버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하교 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애완견 코코가 꼬리를 흔들며 나에게 다가온다. 코코는 기분이 좋은지 날 보면 연신 짖는다. 얼마 전 성대 수술을 해 주었더니 소리가 한결 작아졌다. 이제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

대다수의 동물들은 단지 환경 속에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환경을 바꾸었다 해도, 그것은 내재적 본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며, 자연적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의 발생적 선택에 불과하다. 동물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따를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환경에 작용을 하고, 새로운 물질적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을 조작한다. 간단히 말해 동물은 적응하는 반면, 인간은 스스로를 개선한다. 이 명백한 차이점은 단순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유기적 세계를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본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낭만주의적인 관점보다는 복잡하고 보다 진보된 방식으로 조명해야 한다. 인간의 출현과 문화 창조를 이해하려면, 자연을 생물학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은 포유류이지만, 모든 포유류가 반드시 인간은 아니다. 실로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진화적인 연속성뿐만 아니라 명백한 단절이 있다.

[마]

인간이란 종은 핵전쟁과 환경 파괴 때문에 멸종할 위기에 처한 수백만 생물종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12,000년 동안의 역사가 증언해 주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호전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지한 방식을 바꿀 희망을 별로 보여 주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화석의 역사는 우리가 바뀔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진화의 역사는 우리가 물고기이기도 하고 절묘한 유연성으로 죽음을 물리친 무수히 많은 다른 생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지금의 인류가 이 모양이지만 어느 정도의 확신은 가질 만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멸종의 위기는 변화하고 진화하라는 요청 같기도 하다.

지금의 환경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진화적이고 생태적인 유산을 기억해 내야 한다. 우리는 '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의식의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임박한 멸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인간은 지금 40억 년 진화의 유전이, 유기체로서의 생명이 당장 끊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찰나에 와 있다. 돌이 춤을 추려고 하며 뿌리가 40억 년보다 더 깊이 뻗으려 한다는 자각은 우리에게 절망을 직시하고 좀 더 생명력 있는 의식을 길러내도록 용기를 준다. 그러한 의식은 지속 가능하며, 다시금 생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우리 인디언들은 모든 일에는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말하기는 쉬워도 이해하기는 어렵다.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고 삶 속에서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약초를 구하는 때와 장소를 안다. 그것이 약초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다.

약초는 여름철에 가장 상태가 좋다. 물론 조금 일찍, 혹은 늦게 채취하는 약초도 있다. 약초를 캐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그리고 때맞춰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약초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겨울철에 약초가 필요할 경우, 나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구해 올 것이다. 한겨울에 눈 속에 있는 여름 꽃을 따온 적도 몇 번 있었다. 약초가 꼭 필요할 때만 나는 그렇게 했다. 우리 인디언들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약초뿐 아니라 해와 땅, 구름, 모기, 식물, 사람과 동물들도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약초를 채취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에만 약초를 수집한다. 그리고 주기 전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어떤 풀을 뽑아서 그냥 내버리는 일이 없으며, 재미로 무엇을 죽이는 법도 없다. 우리는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며, 반면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놔두지도 않는다. 우리에게는 잡초라는 것도, 이유 없이 모기에 물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 비도 없다. 위험한 식물이나 동물도 없다. 우리는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바람과 비, 모기와 뱀이 모두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존재 속에 포함시킨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나면, 꾸며 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겨울의 눈도 우리 자신이고 여름의 꽃도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이며, 따라서 인간

은 자연으로부터 자신의 본성을 배울 수 있다. 기술과 물질에 기초한 생활은 인간이 시도한 것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생활 방식이다.

[논제 Ⅰ]
제시문 [가] ~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25점]

■ 예시 답안

[가]-[바]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중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가],[다],[라]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되고, [나],[마],[바]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된다.

[가]는 자연은 역학 법칙에 지배받는 물질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인간의 목적과 지배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자연적 존재라기보다는 자기를 개선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나]는 대지(토지) 윤리적 관점에서 자연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연 전체가 도덕적, 미학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는 환경 위기로 인해 인간도 다른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멸종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주의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과 본성을 반영한 존재들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588자)

■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Ⅰ>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Ⅰ>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가]~[바]는 자연을 바라보는 두 대비되는 관점을 다루고 있다. [가],[다],[라]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하고, [나],[마],[바]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한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다], [라]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사회계열 · 문제 II

※ 제시문 [가]~[바]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을 참고하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사]

1953년 네덜란드인들에게 북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1953년 2월 북해에서 올라온 태풍과 강우가 만나 라인강 하구를 덮쳤다. 해수면보다 4m가 높은 파도로 네덜란드 북부와 남부의 섬, 그리고 해안선 지역 136,500헥타르가 물에 잠겼다. 해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제방 162㎞도 속수무책이었다. 1,836명이 숨지고, 75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1만 개 건물이 파손됐고, 37,300개 건물이 침수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후 1997년까지 44년간 매년 6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북해와 라인강이 만나는 지류에는 대규모 방파제를 설치했고 내륙의 주요 관문에도 둑이 둘러쳐졌다. '복구'를 넘어 '국가 대개조'가 추진된 것이다. 라인강 하류 지역에는 1,25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홍수에도 버틸 수 있도록 방파제를 설계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대는 200년 주기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상습 범람 지역은 2,000년 주기의 태풍과 해일에 대비한 방파제가 설계됐다. 1953년 대홍수가 발생했던 북해 쪽 서해안 지역은 1만 년 주기의 태풍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를 쌓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라인강과 뮤즈강 하류의 로테르담과 지랜드 등에 7개의 방파제가 건설됐다.

[아]

허자(虛子)가 사람과 만물의 차이를 말하자, 듣고 있던 실옹(實翁)이 말했다.

"오호라! 그대의 말대로라면 사람과 만물이 다른 점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무릇 털과 피부 같은 재질과 정혈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이번에는 내가 다시 묻겠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짐승이며, 셋째가 초목이다. 초목은 거꾸로 땅에 붙어 자라나는 까닭에 아는 것[知]은 있지만 깨달음[覺]이 없다. 짐승은 옆으로 기어 다니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지혜는 없다. 이 세 가지 생명체가 한없이 서로 얽히고설켜 살면서 서로 쇠하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는데, 이들 사이에 귀하고 천함의 차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허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 있는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지금 저 짐승이나 초목은 지혜도 감각도 없으며, 예의도 의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고 초목은 짐승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옹은 고개를 젖히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허허허, 너는 진실로 사람인 게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의이며, 여러 줄기가 하나로 뭉쳐져서 가지별로 잎이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따라서 사람의 기준으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며, 만물의 기준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그런 이치로 하늘에서 바라보면 사람과 만물은 균등하다."

실옹이 계속해서 말했다.

"무릇 짐승과 초목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이거나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허튼짓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고 할 것인데 이 역시 거리가 멀다. 또한 봉황은 천 길을 날고 용은 하늘을 날며, 점을 칠 때 쓰는 풀인 시초(蓍草)와 제사 때 쓰는 술인 울창주는 신과 통하며,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재목으로 쓰인다. 그대가 볼 때 이것들을 사람과 견주어본다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겠느냐?"

허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봉황과 용이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짐승에 불과하고, 시초와 울창주가 신과 통하고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재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것 또한 초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략>

허자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자 실옹이 답했다.

"너의 미혹됨이 심하구나! 용이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고 물을 흐리지 않는 것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이 세상을 다스림이다. 또한 구름의 고운 다섯 가지 빛깔은 용의 화려하게 차려입은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아름다운 무늬는 봉황의 차려입은 복식이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이 용의 무기이자 형벌이며, 높은 언덕에서 곡조 있게 울리는 소리는 봉황의 예악(禮樂)이다. 시초와 울창주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귀하게 쓰이고,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아주 귀중한 재목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들이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세상을 다스림에 만물로부터 본받지 않은 바가 없었다. 군신 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법에서 진을 치는 법은 개미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또한 예절의 제도는 다람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가져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어찌하여 하늘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는가?"

실옹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들은 허자가 깜짝 놀라며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자]

지구 온난화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 무취, 무미한 기체이다.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는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실제로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하며,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가격표를 다는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가격표를 늦게 붙일수록 고탄소 자산과 사업 활동 관련 투자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진다.

우리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 경제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공해 물질이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해야 하며, 또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온난화 공해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논제 Ⅱ]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 예시 답안

(1)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두 관점 중 나는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안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되는 유일하고 우월한 존재이며, 자연은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태풍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방파제를 설치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한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가],[다],[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아]는 인간과 자연은 균등하다는 실옹의 주장을 통해 인간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허자를 비판한다. 실옹의 주장은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라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으로 [가],[다],[라]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장경제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스스로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대응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다],[라]의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644자]

(2) [나],[마],[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두 관점 중 나는 [나],[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이므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태풍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방파제를 설치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한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나],[마],[바]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아]는 인간과 자연은 균등하다는 실옹의 주장을 통해 인간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허자를 비판한다. 실옹의 주장은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라는 [나],[마],[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장경제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스스로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대응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나],[마],[바]의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641자]

■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Ⅱ>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Ⅱ>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다], [라]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인간은 자연 안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되는 유일하고 우월한 존재이며, 자연은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나], [마],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이므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태풍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방파제를 설치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한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인 [가], [다], [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 [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태풍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방파제를 설치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한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인 [나],[마],[바]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는 인간과 자연은 균등하다는 실옹의 주장을 통해 인간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허자를 비판한다. 실옹의 주장은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라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으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인 [가],[다],[라]의 관점과 대비된다.
— [아]는 인간과 자연은 균등하다는 실옹의 주장을 통해 인간우월적인 사고를 가진 허자를 비판한다. 실옹의 주장은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라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인 [나],[마],[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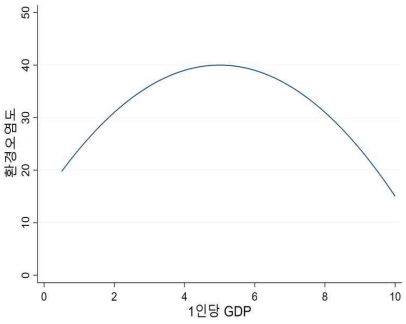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장경제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스스로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대응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다],[라]의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자]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장경제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스스로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대응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나],[마],[바]의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계열 · 문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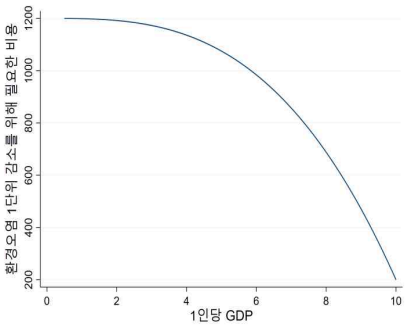
※ [논제 Ⅰ]과 제시문 [자]는 앞 문항(사회계열 · 문제 Ⅰ, 사회계열 · 문제 Ⅱ)을 참고하시오.

[논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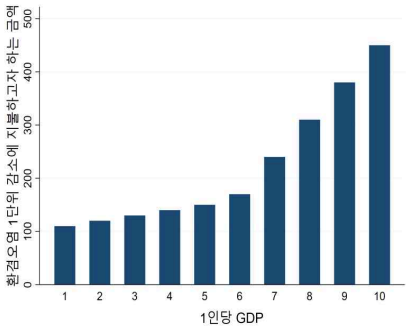
(1) **<자료 1>은 각국의 1인당 GDP와 환경오염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자료 2>는 각국의 1인당 GDP와 오염물질을 1단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료 3>은 1인당 GDP에 따라 국가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환경오염 1단위 감소를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평균 금액을 나타낸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2>와 <자료 3>을 이용하여 왜 <자료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자료 1>이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국가 A에서는 1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의 $\frac{1}{10}$만큼 탄소를 배출한다. 국가 B는 국가 A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의 20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를 입는다. 국가 A의 생산과 탄소 배출에 따른 국가 A와 국가 B에서의 국민 총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난다.**

(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 = 10 × (생산물의 총량) − (탄소 배출량)^2 − (피해보상액)
(국가 B의 국민 총만족도) = 2000 + (피해보상액) − (피해액)

① 국가 A에서 국가 B에 탄소 배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때, 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물의 총량과 탄소 배출량을 구하시오.

② 국가 A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국가 B가 입은 피해액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물의 총량과 탄소 배출량을 구하시오.

③ 국가 A가 국가 B에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국가 A와 국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자]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 예시 답안

(1)

<자료 1>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환경오염도가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환경오염도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자료 2>가 제시하는 것처럼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자료 3>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더 원함에 따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져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
<자료 1>은 인간이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지만, 이후 인간에 의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2)

① 국가 A의 탄소 배출량을 x, 국민 만족도를 y라 하면,

$$y = 10 \times 10x - x^2 - 0 = -(x^2 - 100x + 50^2) + 50^2 = -(x-50)^2 + 2500.$$

국민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탄소 배출량은 50, 생산량은 500이다.

② 국가 A의 탄소 배출량을 x, 국민 만족도를 y라 하면,

$$y = 10 \times 10x - x^2 - 20x = -(x^2 - 80x + 40^2) + 40^2 = -(x-40)^2 + 1600.$$

국민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탄소 배출량은 40, 생산량은 400이다.

③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 A의 국민 만족도는 2500, 국가 B의 국민 만족도는 1000으로 그 합은 3500이다.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 국가 A의 국민 만족도는 1600, 국가 B의 국민 만족도는 2000으로 그 합은 3600이다.

이 결과는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할 때 전체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시문 [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I>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1)

① <자료 2>를 근거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자료 3>을 근거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져 <자료 1>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면 가점 10점.
② <자료 1>은 인간이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지만, 이후 인간에 의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면 가점 10점.

(2)

①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차함수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A국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생산량을 x로 두고 풀어도 적절한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하면 점수 부여. 이 경우 국가 A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y = 10x - \left(\frac{1}{10}x\right)^2 - 0 = -\frac{1}{100}(x^2 - 1000x + 500^2) + \frac{1}{100} \times 500^2 = -\frac{1}{100}(x-500)^2 + 2500$$

따라서 생산량은 500, 탄소 배출량은 50으로 예시답안과 같은 답이 도출됨)

②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이차함수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A국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생산량을 x로 두고 풀어도 적절한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하면 점수 부여. 이 경우 국가 A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y = 10x - \left(\frac{1}{10}x\right)^2 - 2x = -\frac{1}{100}(x^2 - 800x + 400^2) + \frac{1}{100} \times 400^2 = -\frac{1}{100}(x-400)^2 + 1600$$

따라서 생산량은 400, 탄소 배출량은 40으로 예시답안과 같은 답이 도출됨)

③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국가 A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④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국가 A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 제시문 [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가점 5점.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